

■ 논문 ■

1960-1970년대 노동총연맹의 이주노동자 인식과 이미지 생산

신 동 규

1. 머리말

이주노동자의 존재는 어떻게 규정되고 정의되는가? 그들의 사회적 표상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합법적 지위를 가진 이주노동자들의 존재는 상대적 가치에 의해 규정된다. 즉 국적을 가진 시민과 불법 체류자와의 상대적 관계 속에서 그 존재의 사회적 특징이 결정된다. 특히 배제의 논리를 만들어내는 미등록 체류자는 시민의 위상을 규정하는 동시에 이민자들의 사회적 위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배제의 논리가 시민의 ‘시민다운 지위’를 규정하는 동시에 이민자 - 즉 이주 노동자 -의 사회적 위상을 결정하게 된다.

에티엔 발리바르(Etienne Balibar)는 “불안전(insécurité)에 대한 희생양을 지목하고 대중적 빈곤에 대한 공포를 정체성들 사이의 갈등이라는 환상적 공간속에 투사하기” 위해 미등록 체류자들을 “국가가 창출”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즉 발리바르는 미등록 체류자의 존재가 “예외입법과 차별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결합하면서 일종의 유럽적 아파르트헤이트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는 제도적 인종주의가 확산되는 주요 매커니즘 중 하나를 밝혀”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미등록 체류자들의 ‘불법성’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와 네오파시즘과의 공모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¹⁾ 발리바르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은 민주주의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미등록 체류자들, “배제된 이들” 중에서도 배제된 이들은 [...] 이제 민주정치의 실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저항과 상상을 통해 우리가 민주주의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것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해준 데 대해, 그리고 이를 말하게 해준 데 대해 그들에게 빚지고 있으며, 법/권리와 정의가 그들에게 회복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쪽의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편에 참여하게 해준데 대해 그들에게 빚지고 있습니다.²⁾

우리가 발리바르의 지적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미등록 체류자에 대해 행해지는 권력의 작동원리와 담론의 구성방식이 이민자 전체의 조건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있다. 나아가 이 배제의 논리는 인민(시민 또는 국민) 전체에 대한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설정한다. ‘시민의 권리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나누는 논리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시민의 권리를 가진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배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배제상태’가 공포로 다가오는 동시에, ‘불안전(insécurité)’ 상태로 부터의 탈출에 대한 희망이 커진다. 이 관계에서 시민의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은 양도할 수 없으며, 소멸하지 않는 권리로서의 자연권을 보장해 주는 일차적 권리인 ‘[정치적 권리로서의]안전(suret )’을 향유할 수 없게 된다.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면서 미등록 체류자들은 ‘불안전’한 상황을 만드는 원인으로 간주되면서 희생양이 된다.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은 미등록 체류자의 희생이란 바로 정치적 권리의 박탈, 즉 1789년 인권선언에서 규정한 ‘안전(suret )’에서 멀어지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자유’, ‘재산’, ‘안전(suret )’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1) 에티엔 발리바르, 진태원 역, 『정치체에 관한 권리(서울: 후마니타스, 2011), 34.

2) 같은 책, 35.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배제상태’와 ‘불안전’에 대한 공포로 말미암아, ‘불안전’ 상태의 원인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내는 국민국가의 배제의 동학에 의지하게 된다. 결국 ‘압제에 저항할 권리’는 ‘배제상태’와 ‘불안전’에 대한 공포로 말미암아 희미해지게 된다.

발리바르는 ‘압제에 저항할 권리’는 ‘안전(suret )의 조건이자 한계라고 말한다. 1789년에는 분명히 ‘조건’이었다. 그러나 탈경계 시대에는 ‘안전(suret )의 보존을 갈구하는 공인된 ‘시민’들은 ‘불안전’의 공포에서 탈피하고자 타인의 ‘압제에 저항할 권리’를 제한한다. 이렇게 국민국가는 미등록 체류자 - (잠재적 미등록 체류자)외국인(잠재적 시민권 보유자) - 내국인(시민)의 위계질서 속에서 인민(시민 또는 국민)에 대한 통제를 완성하게 된다. 따라서 발리바르의 철학적 사고는 미등록 체류자라고 하는 ‘소수의 불법집단’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미등록 체류자의 존재를 규정하고 대우하는 방식은 잠재적으로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불완전한 시민권의 범위를 결정한다. 이러한 관계에서 발리바르가 ‘유럽식 아파트헤이트’라고 부르는 이민자에 대한 분리가 강화된다. 법에 의해 강제된 분리가 아닌 문화적 차이에 의해 구분되는 형태의 분리는 인종주의 -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신인종주의 - 적 공간구분을 완성한다. 게다가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정착한 후 온전한 권리를 향유하지 못한 자들의 공간은 시민권을 가진 자들 중에서도 사회경제적으로 하층민들의 공간과 교집합을 이룬다. 파리의 방리유(banlieue) 지역이나 영국의 올덤(Oldham), 번리(Burnely) 그리고 브래드퍼드(Bradford) 같은 옛 산업지역의 쇠퇴한 중소도시들은 대표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장기 노동계약으로 정착하게 되는 이주노동자들의 후손들은 이러한 도시 공간에 분리되면서 시민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차별을 받게 된다.

이러한 논의를 고려하여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는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공포가 만들어 내는 상상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불러들이는 생산시스템과 그 속에서의 실제 역할 속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담론질서는 역사적 실제보다 상상속의 공포에 의해 형성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주노동자는 ‘불안전’의 원인을 제공하는 집단인가? 그들은 국민국가의 성원이 될 자격이 없는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회화가 일어나는 일차적 공간인 노동조합의 특성상 노동총연맹이 만들어 내는 이주노동자들의 이미지는 상상속의 공포와 역사적 실제사이의 긴장관계를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실천잡지를 표방한 『노동자의 삶』을 중심으로 1960-1970년대 노동총연맹의 현실인식과 정책노선을 살펴볼 것이다. 즉 이 잡지에 표현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 1960-1970년대 프랑스의 이민과 노동문제를 고찰 할 것이다. 특히 ‘영광의 30년’ 이후 경제위기 속에서 서서히 나타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는 노동총연맹의 현실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노동총연맹이 어떠한 계급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지 살펴 볼 것이다.

2. 노동총연맹의 이주노동자 인식

1929년 대공황 이후 실업이 증가하자 외국인 노동자는 실업률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1931년 프랑스의 이민자는 270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공황의 여파로 1932년에 새로운 노동력의 유입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졌으며, 노동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본국으로 추방되었다. 1936년에는 지역별로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를 할당할 후 필요한 노동 수요만큼의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통제가 더욱 엄격해 졌다. 이러한 통제 정책으로 말미암아 제2차 세계대전 직전 외국인의 숫자는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전쟁의 발발은 급격한 외국인 숫자의 감소로 이어졌다. 결국 전쟁으로 인한 프랑스 산업시설과 사회간접 자본의 파괴는 새로운 이주노동자들을 필요로 했다. 1945년 이민국이 새롭게 설치되어 이주노동자의 수요를 조절했다. 이렇게 전후 경제 재건기에 프랑스는 170만 명가량의 외국인 규모를 유지했다. 1946년 외국인의 숫자는

170만 명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으며, 1954년 까지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장 모네(Jean Monnet)의 주도로 이루어진 생산시설의 현대화와 함께 미국식 대량생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비숙련 노동력의 수요가 급증하게 된다. 1950년대 중반이후 서서히 늘기 시작한 이주노동자의 숫자는 1970년대 340만 명에 이르렀다.

1975년 노동총연맹의 총비서 조르주 세기(Georges Séguy)는 이주노동자들이 “2대 중 1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2채 중 1채의 아파트와 도로의 90%를 건설한다”라고 강조했다.³⁾ 1983년 노동총연맹은 또 다시 이주노동자들이 프랑스 경제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 시켰다.

프랑스에 대한 해로움과는 거리가 먼 이민자들의 존재는 프랑스를 위해 막대한 이득을 가져왔다. 기술연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단순육체노동자로서, 단순노동자(O.S)로서, ‘숙련’노동자로서, 25%의 프랑스의 경제 성장과 부흥, 그리고 프랑스인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다. 이주노동자들은 100개의 주택 중에 30채, 100대의 자동차 중에 25대, 100km의 도로 중 90km를 만들었다⁴⁾

노동총연맹이 이주노동자들의 역할을 강조했던 시기는 역설적이게도 실업률의 증가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담론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을 때였다. 1972년 시작된 인플레이션이 1973년 오일쇼크와 만나면서 시작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프랑스는 통화정책을 통해 투자감소를 유도했고, 그 결과 일자리 감소로 인해 1975년 실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⁵⁾ 이러한 상황에서 1976년 자크 시락(Jacques Chirac) 수상은 “90만 명의 실업자가 있지만, 동시에 20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존재한다”면서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6개월 이상의

3) Lettre ouverte à Georges Séguy, supplément du Peuple, n° 860, 15 février 1975, 53.

4) Tract, CGT Renault Billancourt, 3 mai 1983, archives de l'Institut d'histoire sociale-CGT (105 CFD 20)

5) 신동규, 「노동총연맹의 이주노동자 정책」, 이기라, 양창렬 외, 『공존의 기술』 (서울: 그린비, 2007), 332.

장기간 실업상태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법을 제정했다.⁶⁾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통계자료 이면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었다. 1973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투입된 산업은 주로 건설, 자동차, 광산, 철강, 화학 등 숙련도가 낮으나 노동강도가 강해 당시 단순노동력을 제공하던 여성노동자들이 일 할 수 없는 분야였다. 더욱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프랑스의 남성 노동자들도 꺼리는 일자리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이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는 비중은 프랑스 인 노동자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산업분야별 외국인 이동⁷⁾

	프랑스인		외국인	
	1975	1982	1975	1982
1차산업	11.6	9.28	6.3	4.95
2차산업	43.5	41.06	72	63.77
3차산업	44.9	46.69	21.7	31.28
총계	100	100	100	100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당시 조사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의 75%가 신체적 조건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곳에서 일했으며, 80%가 야간작업 혹은 불규칙한 노동시간에 따라 작업을 했으며, 57%는 고된 작업이라고 여겨지는 분야에 고용되었다. 6개월 이상 직무에 관한 교육을 받고 종사하는 경우는 7%에 불과했다.⁸⁾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실업률 증가의 주원인으로 지목 되었다.

나는 프랑스와 포르투갈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여기[프랑스]에서 살기가 더욱 힘들어 졌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카페에

6) 손영우, 「프랑스 노동시장의 이원주의 성격: 이민자와 이민 2세의 사회경제적 위치」, 이기라, 양창렬 외, 『공존의 기술』 (서울: 그린비, 2007), 280.

7) 같은 책, 279.

8) 같은 책, 258.

1960-1970년대 노동총연맹의 이주노동자 인식과 이미지 생산

들어갈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밤이면 나가지가 주저됩니다. 실업자인 젊은 프랑스인들과의 긴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실업문제]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⁹⁾

200만 여명의 실업자 중, 대부분을 여성이 차지한다(60%). [나이를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많은 청년층이 실업상태이다(56.8%). 49세 이상의 사람들도 다수를 차지한다(14.5%). 그리고 사무직, 기술자, 간부들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고되고, 비숙련 저임금의, 때때로 가장 위험한 이민자들의 노동을 그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그러한 일을 수행하는 것을 거절한다. 1976년 정부부처간 공동 조사는 프랑스에서 일하는 150,000명의 외국인의 해고가 최대한 13,000개의 일자리를 남겼다.¹⁰⁾

즉 외국인 노동자들이 남긴 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프랑스인들이 거부하였다는 의미이다.

3. 『노동자의 삶』을 통해 본 1960-1970년대 이주노동자

1) 노동총연맹과 『노동자의 삶』

1895년에 결성된 노동총연맹(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은 무정부주의 성향의 아나코-생디칼리즘(anarcho-syndicalisme)의 영향 아래 있었다. 1909년 10월 5일 “실천잡지(Revue d'action)”를 표방하는 『노동자의 삶』의 발간은 당시 노동총연맹에서 무정부주의적 혁명노선이 가지는 확고한 입지를 보여주는 시작점이자 마침표였다. 제호는 무정부주의자로서 노동자 교육과 조합활동을

9) *La vie ouvrière*, octobre 3 au 9, 1977, 신동규, 「노동총연맹의 이주노동자 정책」 332에서 재인용.

10) Tract, CGT Renault Billancourt, 3 mai 1983, archives de l'Institut d'histoire sociale-CGT (105 CFD 20)

위해 만들어진 노동조합 (Bourse du travail)의 설립자였던 페르낭 펠루티에(Fernand Pelloutier)가 1910년에 쓴 책 『프랑스 노동자의 삶(La Vie ouvrière en France)』에서 비롯되었다. 창간호에서 “우리는 [브르주아]교육의 힘을 믿지 않는다. 진정한 교육자(véritable éducatrice)는 행동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스스로 그 역할을 규정하였던 『노동자의 삶』은 빅토르 그리퐁엘(Victor Griffuelhes), 알퐁스 메르하임(Alphose Merrheim), 조르주 이브토(Georges Yvetot), 피에르 모나트(Pierre Monatte), 레옹 주오(Léon Jouhaux) 등의 혁명적 노동조합주의자들이 주도했다. 이들은 모두 평화주의(pacifisme) 노선을 견지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자본주의 국가에 거리를 두며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했다. 이들 중 레옹 주오와 조르주 이브토는 신성동맹(Union sacrée)에 참여해 참여정책(Politique de présence)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전시 물자 생산을 독려하는데 앞장섰다. 레옹 주오는 전후 노동총연맹의 일간지 『인민(Le Peuple)』의 논조를 지지하는 다수파를 대표하면서 개혁주의 노선의 지도자로 부상했으며, 1921년 노동총연맹의 분열 후 1936년 재통합 될 때까지 노동총연맹을 이끌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자의 삶』의 편집진의 변화는 노동총연맹에서 공산주의 노선이 중요한 정치집단으로 등장하는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1904년 장 조레스(Jean Jaurès)에 의해 창간된 『뤼마니떼(L’Humanité)』는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회주의 노선의 노동자인터내셔널프랑스지부(Section Française de l’Internationale Ouvrière)의 기관지에서 공산당(Parti communiste)의 기관지로 변화했다. 『노동자의 삶』도 곧 『뤼마니떼(L’Humanité)』와 같은 길을 걸었다. 1922년 새로운 편집진에는 가스통 몽무소(Gaston Monmousseau)를 중심으로 줄리앙 라카몽(Julien Racamond), 에두아르 뒤딜리유(Édouard Dudilieux), 피에르 세마르(Pierre Sémar), 모리스 샹벨랑(Maurice Chambelland) 등 초기 아나코-생디칼리즘의 영향아래 있었던 혁명적 노동조합주의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1921년 노동총연맹의 분열 당시 혁명노선을 공유했던 공산당 계열과 무정부주의자들이

지지했던 통일노동총연맹(CGTU)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다. 그러나 1923년 통일노동총연맹의 붉은국제노동조합연맹(L'Internationale syndicale rouge, ISR)의 가입문제는 『노동자의 삶』이 공산당과 보조를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새로운 국제 노동연맹을 지지하는 아나코-생디칼리스트들과 레닌을 지지하는 공산당 계열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연대해 순수한 무정부주의적 노선의 아나코-생디칼리스트들이 볼셰비키에 반대하는 것을 비판했으며, 가스통 몽무소가 제안한 붉은국제노동조합연맹 가입안을 통과시켰다.¹¹⁾ 이러한 상황아래 공산당에 비판적이었던 모리스 상벨랑을 제외한 대부분의 편집진들은 공산당에 가입한 후 1920년대 중반에는 공산당의 주요 간부를 역임하였다. 이렇게 1936년 두 노총의 재통합 까지 『노동자의 삶』은 통일노동총연맹을 대표하는 노동자 잡지가 되었다.

1936년 노동총연맹과 통일노동총연맹의 재통합으로 새로운 노동총연맹(CGT)이 만들어졌다. 이 새로운 총연맹에서 기존 노동총연맹 계열(ex-confédéré)의 레옹 주오가 이끄는 개혁주의 노선의 목소리는 공식 기관지가 된 『인민』이 대변했으며, 통일노동총연맹 계열(ex-unitaire)은 브누아 프라송(Bnoit Frachon)의 지도아래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 『노동자의 삶』을 중심으로 모였다. 그리고 자본주의 생산질서의 개혁을 요구하는 『인민』과 소비에트를 모델로 혁명적 변화를 추구하는 『노동자의 삶』 사이에는 제3의 길을 추구하는 중도파가 르네 블랑(René Belin)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새로운 잡지 『노동조합(Syndicat)』을 발간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레옹 주오 지지파와 브누아 프라송 지지파가 레지스탕스에 참여한데 반해, 『노동조합』 그룹은 비시정부에 협력하였다. 따라서 전후 르네 블랑 지지그룹은 자연스럽게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한데 반해, 『인민』은 개혁노선을, 『노동자의 삶』은 프랑스공산당(PCF)의 노선을 대표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후 프랑스 공산당의 약진과 더불어 1946년에 공산당 계열이 노동총연맹을

11) 743대 406으로 CGTU의 ISR의 가입이 가결되었다. Michel Dreyfus, *Histoire de la CGT* (Bruxelles: Editions Complexe), 128.

장악하자, 이에 반대하는 개혁노선이 1947년 노동총연맹-노동자의 힘(CGT-Force ouvrière)을 결성했다. 그러나 1946년 까지 개혁노선이 다수를 차지했던 『인민』은 노동총연맹에 잔류하면서 노동총연맹의 공식기관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결국 활동가 교양 매체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노동자의 삶』은 노동자 대중을 위한 잡지로 거듭났다.

피에르 모나트, 가스통 몽무소,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비합법 활동 시기 브누아 프라송으르 거쳐 다시 가스통 몽무소가 1960년까지 편집위원장을 지낸 『노동자의 삶』은 공산당원인 앙리 크라숙키(Henri Krasucki)가 1982년 까지 이끌었다. 따라서 1960-1970년대 『노동자의 삶』은 프랑스 공산당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노동총연맹의 현실인식과 정책노선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고 할 수 있다. 이후 『노동자의 삶』을 이끈 루이 비아네(Louis Viannet, 1982-1992)와 프랑수아 뒤테이유(François Duteil, 1992-1999)는 모두 공산당 정치국(Bureau politique) 위원이었다. 이것은 노동총연맹의 총비서는 프랑스 공산당 정치국 위원이어야 한다는 전통이 노동총연맹에 대한 프랑스 공산당의 지배를 보여주듯이 『노동자의 삶』과 프랑스 공산당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프랑수아 뒤테이유의 뒤를 이은 알랭 기노(Alain Guinot, 1999-2010)는 2001년 『노동자의 삶』의 제호를 『새로운 노동자의 삶(La Nouvelle Vie ouvrière』으로 바꿨다. 점차 “실천잡지”에서 정보전달의 매체로 변화하면서 사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노동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매체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제 『새로운 노동자의 삶』은 “실천잡지”가 아닌 “사회, 법률, 노동조합 정보(information sociale, juridique et syndicale)” 매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노동자의 삶』을 통해 본 노동총연맹의 이주노동자 인식: 하나의 계급?

알제리 독립은 프랑스의 인구 구성 변동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예비양 협정으로 알제리에 거주하는 프랑스인들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알제리인들의 프랑스 노동이주를 허락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과거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로 노동이주를 확대하는

1960-1970년대 노동총연맹의 이주노동자 인식과 이미지 생산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1962년 43만 명이던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이 1968년에는 22만 명 증가했으며, 1975년에는 44만 명이 더해져 총 109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1968년을 기점으로 유럽 이민자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프랑스의 이민구조가 변화하게 된다. 1975년 까지 새로 유입되는 이민자의 73%가 아프리카 출신이었으며, 이들의 이주 목적은 대부분 일자리였다.¹²⁾

프랑스 이민자의 지역별 분포

(INSEE, Les immigrés en France, 2005, p. 49)

	1962	1968	1975	1982
유럽 출신	78.7	76.4	67.1	57.3
아프리카 출신	14.9	19.9	28	33.2
총 수	2,861,280	3,281,060	3,887,460	4,037,036

1972년 2월 2일 『노동자의 삶』은 “우리들 사이에, 우리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소개했다. 그리고 1973년 4월 25일에는 “프랑스인, 이민자: [유일한] 하나의 노동계급”이라는 표제와 함께 특집 기사를 실었다. 이 두 기사는 이주노동자의 특수성보다는 노동자로서의 동질성과 보편성을 강조하는 구호로 시선을 끌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노동계급' 혹은 '이주노동자' 중 어떤 정체성으로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집단행동에 나선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¹³⁾ 이 두 기사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지배적인 담론을 형성했던 단일한 '노동계급' 노선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이주노동자들은 공존의 대상이 아닌 단기 노동체류자들로써 일시적 통합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¹⁴⁾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노동자의 삶』이 ‘하나의 노동계급’이라는 이름으로 '평등실현'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즉

12) 손영우, 「프랑스 노동시장의 이원주의 성격: 이민자와 이민 2세의 사회경제적 위치」, 256-257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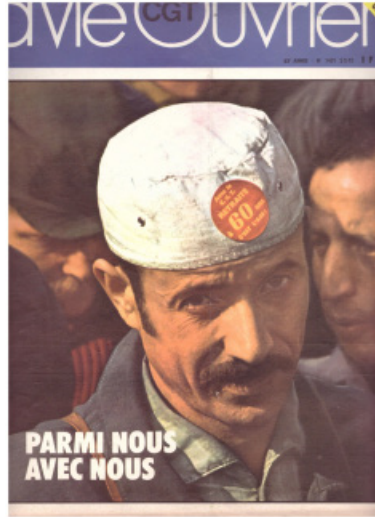
13) Laure Pitti, “Grèves ouvrières versus luttes de l’immigration: une controverse entre historiens”, *Ethnologie française*, vol.31, 2001/3, 467.

14) 신동규, 「1980년대 프랑스 자동차 산업의 이주노동자와 신인종주의: 계급과 인종사이」, 『Homo Migrans』, vol. 7 (2013), 44.

이민자들을 “완전히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간과 노동자들”로 표현하고 있다.¹⁵⁾



V.O. 1973. 4. 25



V.O. 1972. 2. 2

‘하나의 노동계급’이라는 주장은 이주노동자와 프랑스 노동자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것은 노동총연맹의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인상은 프랑스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¹⁶⁾ 결국 단일 계급 논리에 이주노동자들은 프랑스 노동자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매개자로 등장할 뿐이다. 1972년 2월 2일자 『노동자의 삶』의 표지 사진은 이주노동자를 통해 ‘60세 정년퇴직’을, 1973년 4월 25일자 표지사진은 ‘고용보장’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해고(licenciement)’가 프랑스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의미한다면 이주노동자들에게는

15) *La vie ouvrière*, 25-4-1973

16) 신동규, 「1980년대 프랑스 자동차 산업의 이주노동자와 신인종주의」, 45.

‘계약종결(fin de contrat)’가 실직을 의미하고 있었다.¹⁷⁾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기업주의 사회적 실천(pratique sociale)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외국인노동자를 하나의 계급으로 규정하고 담론전쟁을 벌이는 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다른 한편으로 1960-1970년대 『노동자의 삶』이 소개하는 많은 이미지들이 이주노동자들의 특수성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V.O. 1964. 6. 3



V.O. 1966. 3.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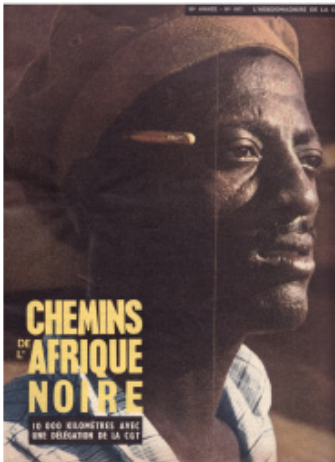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주거 조건은 프랑스 노동자들과 명확하게 비교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일반적인 이민자들의 주거 공간은 대도시의 고층건물과 대비되는 도시 외곽의 판자촌이었다. 1966년 『노동자의 삶』은 폐차로 만들어진 주거지에서 6명의 포르투갈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모습을 소개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비참한 조건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미지 속에 나타나는 판자촌의 풍경은 이민자 주거환경 문제의 특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17) *La vie ouvrière*, 2-2-1972



V.O. 1966. 3. 30

또한 많은 이미지들이 프랑스인들과 더불어 사는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신체적 특징을 부각시키면서 정형화된 이미지들을 재생산 하고 있다. 『노동자의 삶』이 생산해내는 검은 피부에 두꺼운 입술을 가진 아프리카인들의 이미지는 타자화된 이민자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의 모습은 신체적 특징이 부각될 뿐 프랑스에서 프랑스인들과 함께 일하는 노동자의 이미지가 아니었다. 그들은 먼 곳에서 프랑스를 찾아온 ‘이방인’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V.O. 1964. 2.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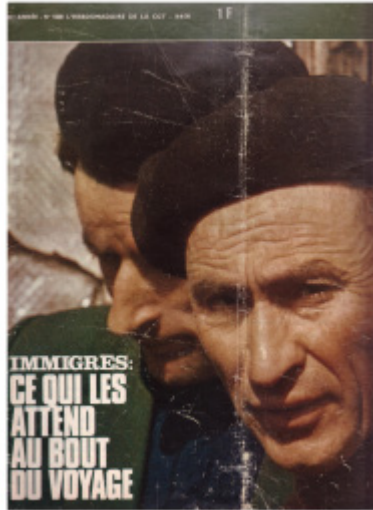
V.O. 1967. 11. 29

1960-1970년대 노동총연맹의 이주노동자 인식과 이미지 생산

또한 백인 외국인들에게도 같은 시선이 적용되었다. ‘바스크식 모자(bonnet basque)’로 불리우는 검은 베레모를 쓴 포르투갈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하나의 계급’아래 묶이는 동질성 보다는 문화적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미지는 ‘타자성’을 더욱 부각시킬 수밖에 없었다.



V.O. 1965. 4. 7



V.O. 1970. 4. 8

이러한 이미지들은 실제 인식에서 이주노동자들을 프랑스노동자들과 동질적 존재가 아닌 이질적 존재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민자들을 타자화 시키는 이미지 생산주체의 시선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노동총연맹의 사회 통합정책을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주노동자들은 통합의 대상일 뿐 통합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

이주노동자를 노동계급 내의 특수한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새로운 이민정책을 수립하는 변화의 시점은 1980년대 초반이었다. 특히 1982년과 1983년에 파리 근교에서 발생한 파업은 이주노동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집단 정체성을

이주노동자가 아닌 비숙련 노동자(ouvrier spécialisé)로 규정했다. 이것은 자신들의 노동조건이 자본주의 생산 시스템의 보편적인 문제라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또한 ‘이방인’들의 고립된 투쟁으로 간주되는 것을 경계했던 것이다. 이것은 프랑스에서 자신들을 타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맺음말

노동총연맹은 이주노동자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분명한 것은 노동총연맹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배제의 논리에 맞서 생산시스템 속에서 그들의 실제 역할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즉 노동총연맹은 이주노동자들이 프랑스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이 외면하는 위험하고 고된 일을 대신 맡아서 해주는 노동계급의 일원이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들을 실업률 상승의 주범으로 간주하는 인종주의적 시각과 대조되는 것이었다. 노동총연맹은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숙련도가 낮으나 노동 강도가 높은 분야에 종사했으며, 이들이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던 건설, 자동차, 광산, 철강, 화학 등의 분야에 고용되어 소비사회의 필수품들을 생산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올바른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노동총연맹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실천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노동총연맹의 전략에서부터 비롯된 모순이 원인이었다. 노동총연맹은 ‘하나의 노동계급’이라는 전통적이며 교조적인 시각을 통해 이주노동자와 프랑스노동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다. 이것은 국경을 넘어온 이주노동자의 특수성 보다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로서의 동질성과 보편성을 강조하는 구호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단일한 노동계급’ 노선은 노동운동에서 지배적인 담론을 형성하고 있었다. 양자 모두 자본주의적 생산시스템의 동일한 피해자라는 관점이었다.

그러나 당시 프랑스에서는 단기 노동체류자로 입국했던 외국인

1960-1970년대 노동총연맹의 이주노동자 인식과 이미지 생산

노동자들을 일시적 통합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은 더불어 살아가야 할 공존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게다가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내국인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두 집단은 이질적인 사회경제적 조건과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노동총연맹은 이주노동자들의 특수한 현실을 알고 있었다. 특수성에 대한 실제 인식과 단일한 계급을 지향하는 선언적 구호의 차이는 역설적이게도 모순된 이미지 생산으로 귀결되었다. ‘하나의 노동계급’이라는 구호아래 함께 일하고, 함께 투쟁하며, 함께 생활하는 이주노동자와 프랑스 노동자의 모습이 아니라 외국인들을 타자화된 대상으로 묘사하는 이미지들이 만들어지고 재생산 되었던 것이다.

창원대학교, shindongkyu@changwon.ac.kr

주제어: 노동총연맹(CGT),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s), 비숙련 노동자(ungskilled workers), 이미지(Image), 노동자의 삶(La vie ouvrière)

(논문투고일: 2015년 6월 9일, 심사일: 6월 15일, 게재확정일: 6월 19일)

<국문초록>

1960-1970년대 노동총연맹의 이주노동자 인식과 이미지 생산

신동규

노동총연맹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배제의 논리에 맞서 생산시스템 속에서 그들의 실제 역할을 강조했다. 즉 노동총연맹은 이주노동자들이 프랑스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이 외면하는 위험하고 고된 일을 대신 맡아서 해주는 노동계급의 일원이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들을 실업률 상승의 주범으로 간주하는 인종주의적 시각과 대조되는 것이었다. 노동총연맹은 ‘하나의 노동계급’이라는 전통적인 시각을 통해 이주노동자와 프랑스노동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다. 이것은 국경을 넘어온 이주노동자의 특수성 보다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로서의 동질성과 보편성을 강조하는 구호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단일한 노동계급’ 노선은 노동운동에서 지배적인 담론을 형성하고 있었다. 양자 모두 자본주의적 생산시스템의 동일한 피해자라는 관점이었다. 그러나 동총연맹은 이주노동자들의 특수한 현실을 알고 있었다. 특수성에 대한 실제 인식과 단일한 계급을 지향하는 선언적 구호의 차이는 역설적이게도 모순된 이미지 생산으로 귀결되었다. ‘하나의 노동계급’이라는 구호아래 함께 일하고, 함께 투쟁하며, 함께 생활하는 이주노동자와 프랑스 노동자의 모습이 아니라 외국인들을 타자화된 대상으로 묘사하는 이미지들이 만들어지고 재생산 되었던 것이다.

<Abstract>

The CGT's Perception of migrant workers and production of images in 1960s and 1970s

Dongkyu Shin

CG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organizations to socialize migrant workers. This french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opposes the logic of exclusion and points out the role migrant workers play in the production systems. CGT doesn't consider them as a factor increasing the unemployment rate, but as the part of working class. Thus the CGT establishes the relation between french workers and migrant workers under the influence of slogan "one sole working class". Ignoring distinct characteristics of migrant workers, this slogan highlights homogeneity and universality as victims of capitalism. However, the CGT perceives special situations of migrant workers. Their labor conditions and living environment are particularly bad and worse obviously than those of french workers. This difference between perception of special situation and slogan aiming one sole working class leads to produce several type of paradoxial images. Under the slogan of "one sole working class", images which the CGT produce in *La Vie ouvrière* in 1960s and 1970s, describe migrant workers as otherized body.